

#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연합 성명문

##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비통한 사건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동료 교사, 학생(아동), 학부모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본 학회(협회)는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아동과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과 교사의 권리는 분리되어 보장될 수 없으며, 더더욱 충돌되지 않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며,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입니다. 이에 부적절한 민원, 위협, 위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체계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하여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동발달과 보호에 있어 교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인권 기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 들은 이들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아동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의 권한을 확대·보장하는 사회적·정책적·법적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조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은 정서적 학대와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교사 또한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책과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동과 교사 모두가 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8월에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은 부모이고, 교사를 포함한 대리양육자의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사례는 10% 내외에 불과하며, 학대받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는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22년 약 38%)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과 관련된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 중심의 관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아동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지지체계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3. 9. 19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나다순, 9. 20. 12시 기준)